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달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비약적 혁신을 일으키며 꽃피운 나아가고 있는 각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 불후의 고전적 희로파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평생불멸이다」를 발표하신 1돐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 104(2015)년 10월 4일에 발표하신 「로작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물까지 완성하기 위한 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년간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의 명도적 권위와 전투적 위력에 비상히 강화되고 우리 당이 이끄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승리의 철학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된 나날이었다. 불과의 정치 사상강국, 자주의 해강국, 새우신성한 강국의 유흥이 만방에 퍼져나온 인민의 꿈과 희망이 빛나는 현실로 절묘히 고인은 오늘의 자랑만 보습은 천만군민에게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 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펼치며 백승의 맥사만을 아로새어갈 것이다.』

혁명적인 당은 혁명위업의 개척과 전진,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정직무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각 기회주의 조류를 극복하고 우리 당을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는 통일적으로, 전투력이 강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전성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는데서 나서는 폐본질 친체 문제를 풀어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을 대하여 깊이 높이 달려온 우리 당은 영원히 품위를 끌어올리고, 주체혁명위업을 풀어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굳힌 데다

여 수령의 윤활사상체계와 윤활적

명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깊이

깊이 살피시켜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필승불

명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우리

당이 인민으로부터 우뚝 서고 경

승으로 여기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져 보살펴는 철정한

어느나ign으로 강화되었던 대제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중요한 자리

을 차지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

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

나가며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체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

업을 펼쳐나가는 당의 혁명명도

방식은 주체의 사회주의의원이 사

모든 승리의 조직자, 활동자로서의 역

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올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당선사상

과 혁명적당으로 강화되고 주체의

명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중

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명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

전편에 대하여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당의 첫 시

기부터 혁명대오의 토일단계에 따른

한 혼독적 후파를 미친 종파주의와 온

교거한 업적이 전면적으로 짐작되어

제국주의가 있는 한 인민대중의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적들과의 침에 한 대결을 통한 후에 한 대결을 풀어낸다. 우리 당은 총대총사, 군사총사통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풀어내고 혁명부여전체와 나비의 방위 혁명화를 제일자적인 국사로 내세웠으며 인민군대를 풀체령의 혁명강군으로 기워 미제와의 계속되는 대결

로 동계군의 당은 혁명파·건설용 명도하는 최고의 정치조직이며 당의 명도를 떠나서는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함께 나아가는 혁명적당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주체 혁명위업수행에서 조선로동당이 이 특한 불멸의 조직과 고귀한 경험을 발휘해 있는 강령적문헌이다.

로동계군의 당은 혁명파·건설용 명도를 이어 끌어온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고귀한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영원히 품위를 끌어올리고, 주체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 여기에 위대한 한 수령님께서는 평생불

명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우리

당이 인민으로부터 우뚝 서고 경

승으로 여기며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당의 혁명을

전진과 함께 나아가는 혁명적당이다.

인민대중의 당은 혁명파·건설용 명도제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깊이

깊이 살피시켜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수령의

근본원칙과 블리미 전집으로

제국주의의 대회에서 철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당선에 건설된 우리 당은 혁명파·건설용 명도제계를

제국주의 혁명파·건설용 명도제계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함을 이루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사망하는 동포형제

해사적인 10·4선언발로 9월을 맞는 뜻깊은 오늘 우리 편성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저연거행장을 전개하였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원원과 의지가 반영된 조국통일 3대 원장기념관에서 접세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우리들은 북남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의 대단절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향하여 열어나갈 일념으로 힘차게 달리고 또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자전거행진은 판문점을 넘어 남녘땅에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삼천리조국강토와 거제의 현액을 끌어놓은 저주로운 불멸의 정력을 미루한 지금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며 조국통일이 얼마나 절박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서우지에 절감하고 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강도에서 한민족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갈라진 민족으로 남아있고 대결과 전쟁의 사슬로 빠리고 있는 것은 실로 민족의 커다란 수치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의 정당, 단체, 개별인

복과 남, 해외의 사망하는 동포형제

민족지주와 민족대단결을 이루어온 온 세계에서 새나가려는 드립없는 의지의 발현이며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부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풍파구를 넘나들어나갈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지금 북중준비위원회와 해외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조선에서만 절친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허지 않고 대회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론의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정전,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흘, 하나의 겨울임을 온 세상에 몇몇이 파시하였다. 6. 15시대의 적정과 환희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떨쳐일어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물리 아니고 삼천리강과 우에 영원한 평화의 뿐만 하늘을 펼쳐나가자!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6. 25침침생의 칠한국을 강요한 미세가 오늘까지 남조선을 끄고 암살당한 최첨경장장비들을 물어들이고 끝없는 북침전쟁소동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치욕을 우리 민족의 대단절로 끌어내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떨쳐일어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물리 아니고 삼천리강과 우에 영원한 평화의 뿐만 하늘을 펼쳐나가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때문이다.

8월만이 뜻파 힘을 학자면 무시울것이 없고 못해 놓일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거주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루고 통일에 국가의 기치아래 하나로 풀자자!

3. 북교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절의 기치를 더욱 높이 주고자!

자주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민망에 떨쳐가고 있는 광화국의 현실과 청진사대로 외세의 말을 묻고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후하고 위험하면서 우리 겨울에 깨제 난리를 들으우며 달팽하게 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임종한 정세는 바로 미국의 세계체계

도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체동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체를 지키는 미군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통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추어들자!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통을 주호도 허용하지 말자!

민족의 대단절은 조국통일의 원하지

않았다.

이미 병원에서는 백남기농민의 어떻게 쓰려

서서 실신상태에 처하였다. 그

때에도 괴뢰들은 도로바닥에

나뒹구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버렸다. 그들이

